

정권교체 50%대·정권연장 40%대...선호도 1위 이재명

방송 3사 차기 대선 여론조사, 중도층서 교체론이 크게 앞서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특검 필요하다" 압도적으로 우세

설 연휴 기간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50%를 기록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실시하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속한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많다는 것인데,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론 여부, 법원의 내란죄 재판 진행 여부 등과 함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차기 대선주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대 선호도를 보이며 1위에 올랐다.

◇3사 모두 교체론 크게 우세=30일 방송 3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권 교체론은 50%대, 정권 연장론은 40%대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도 정권교체론이 재창출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권교체론이 연장론보다 11%포인트(p) 앞섰다.

50%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답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은 39%였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57%, 정권 재창출 29%로 격차는 28%p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가 '정권재창출을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4%)보다 6%p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MBC의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경우 정권 교체와 재창출 의견이 각각 59%, 33%로 26%p 격차를 보였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50%)가 '야당의 정권 재창출' (43%)보다 7%p 더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정권교체가 55%, 정권재창출이 36%로 조사돼 그 격차는 19%p로 벌어졌다.

◇이재명 다자·양자 구도 모두 앞서=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자구도에서 35~36%의 지지율을 가장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양자 구도에선 이 대표 지지율은 40%대로 오르며 야권 후보에 대해 우세를 유지했다.

야당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4~17%로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5%, 김 장관이 1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7%의 지지율을 얻었다.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은 각 5%,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지사가 각 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로 뒤를 이었다.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와 오 시장은 45% 대 36%, 이 대표와 홍 시장은 46% 대 36%, 이 대표와 김 장관은 47% 대 35%,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46% 대 28%로 나타났다.

SBS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5%, 김 장관이

15%, 홍 시장이 8%, 한 전 대표가 7%, 오 시장이 6%로 집계됐다.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와 김 장관 42% 대 28%, 이 대표와 오 시장 42% 대 26%,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41% 대 22%, 이 대표와 홍 시장 41% 대 27%로 이 대표가 야권 후보 4명과 비교해 우위를 보였다.

MBC 조사에서는 이 대표 36%, 김 장관 17%로 조사됐다. 이어 오 시장 7%, 홍 시장 6%, 한 전 대표 5%였다.

이외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

KB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5%,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그 외 다른 정당 2% 순이었다.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4%, 국민의힘 41%,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그 외 다른 정당은 1%였다.

SBS 조사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9%,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기타 정당이 각 1%였다.

특히 선거를 임박해 줄어드는 무당층 비율이 여야 지지층의 결집으로 감소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KBS 조사의 경우 연말에 비해 무당층(14%)이 7%p 줄었고, SBS 조사에선 무당층(15%)이 작년 4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재작년 12월보다 8%p 적었다.

◇'내란특검법 필요' 우세=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답변이 많았고 내란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피고인에게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본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MBC 조사에서 '공수처·검찰·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내란 관련 수사'와 별도로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가 '찬성한다'고 했고 44%가 '반대한다'고 했다.

MBC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는 55%가 '동의한다', 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SBS 조사 중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검, 즉 특별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60%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4%는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SBS가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물었더니 56%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38%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KBS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4%,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다. MBC와 SBS는 모두 무선전화면접 100%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18.9%, 2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재명-문재인 손잡고 새해 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통합이 당 앞길에 중요” 이재명 “그런 행보할 것”

이재명 대표, 평산마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신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과 포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 대표에게 통합·포용 행보의 중요성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공감을 표시하며 통합 행보를 거듭 다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뒤 “지금과 같

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포용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크게 공감하고,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대표가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당 안팎의 여러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에 무게를 뒀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협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외도 화제가 됐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대화를 주선한 경험이 있다”며 “당시 소통했던 많은 인력과 지혜가 있으니 이를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 두 번째 당 대표직 임기 시작과 함께 이 대표가 양산을 찾은 이후 첫 만남이다. /연합뉴스

야권 소수정당들, 대선 민주당과 연대·독자 노선 '고민'

야권 소수정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에서 조기 대선 대비에 나서면서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수정당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를 택할지, 탄핵 정국 속 확보한 진보 진영 지지세를 흡수해 독자적으로 나설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특히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지난

해 총선 때부터 민주당과의 연대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합당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혁신당 내 일각에서는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상과제인 정권 교체에 대비해 대선 후보 단일화 등 민주당과 강력한 수준의 연대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혁신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진보성향 유권자를 포섭할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석을 가진 진보당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범진보연대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원내각 1석씩 보유한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도 조기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www.kps.co.kr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